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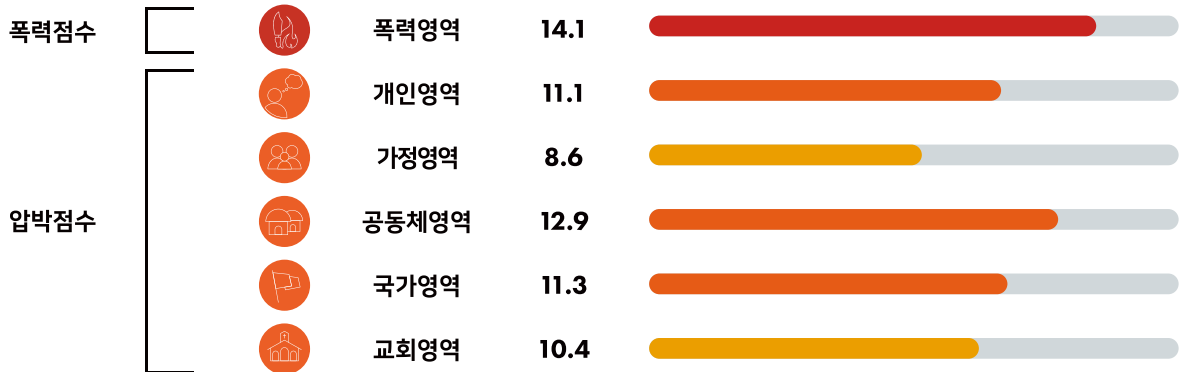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콜롬비아(Colombia)

기독교 박해지국
34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방치되거나 범죄 단체의 통제하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위협, 갈취, 심지어 살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종종 부패를 규탄하고,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합니다.

일부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기독교 선교사와 개종자들에 대한 반대가 있어, 투옥, 교회 폐쇄, 신체적 학대, 위협, 괴롭힘 등이 발생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므로 이 공동체와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속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공공 영역에서 성경 기반 의견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 가족, 결혼, 종교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말할 때 차별적이거나 증오 발언을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기 검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콜롬비아 (Colombia)

국가 정보

지도자 : 구스타보 프란시스코 페트로 우레고 대통령

인구 : 51,673,000명

기독교인 수 : 49,079,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9,079,000	95.0
불가지론	1,455,000	2.8
민족 종교	317,000	0.6
기타	540,600	1.0

출처²

콜롬비아는 수십 년 동안 부패하고 약한 법적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는 국가 전역에서 활발한 범죄 네트워크가 번성하게 만들었으며, 주로 불법 마약, 무기 및 인신매매 거래에 의해 자금이 조달됩니다. 팬데믹 동안 범죄 단체들의 통제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은 전체 지역을 장악하고, 평화를 옹호하며 범죄 활동에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교회들은 또한 강도와 파괴 행위를 겪었습니다. 누도 데 파라밀로(Nudo de Paramillo)와 카타툼보(Catatumbo)와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무장 단체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 메시지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감시는 다른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2023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안군은 범죄 조직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 시스템이 과중하고 비효율적이며, 부패와 판사, 검사 및 증인에 대한 협박이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2022년 6월, 좌파 정당 연합인 역사적 협약(Historic Pact)의 구스타보 페트로가 2022-2026년 동안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출처³) 구스타보 페트로의 54페이지 분량의 정부 계획은 종교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종교적 및 영적 선택에 따라 평등과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⁴)

주요 기독교 교파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전체 기독교인의 90%를 차지합니다. 개신교 교회 그룹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이는 이른바 '메가 교회'가 설립된 곳에서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 지도자들은 사회의 빈곤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 가장 필요한 가정에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가톨릭 주교들은 국가 전역

¹ 정보출처: Todd M. Johnson과 Gina A. Zurlo, 편집,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3년 3월 접속)

² 정보출처: 출처2 기타 중국 민간 신앙, 신종교 신자, 시크교도, 영성주의자, 도교, 유교, 자이나교도, 신토이스트, 조로아스터교도가 포함됩니다. 자료 출처: Todd M. Johnson과 Gina A. Zurlo, 편집,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3년 3월 접속)

³ 정보출처: CNN España, 2022년 6월 19일 ⁴ 정부 계획 2022-2026, 날짜 미상

의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정부에 양국 간 관계를 재개하여 이민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Aciprensa, 2022년 5월 25일)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 네트워크와 조직은 국가의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Manos Unidas, 2022년 5월 17일) 사회 위기를 촉발하는 요소에 주목하고 평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El Tiempo, 2023년 1월 12일) 진실, 공존, 재발 방지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교회 조직의 중재 능력을 강조하며, 사회 조직의 재건과 사회의 다양한 부문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 사항 중 하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정한 위협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계속해서 평화 문화(Comisión de la Verdad, 2022년 6월)를 위해 일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특히 성폭력은 또 다른 우려 요소입니다. 위협이 가해져 피해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주로 소년)들의 강제 징집이 기독교 공동체에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 지역에서 영토 통제를 위해 경쟁 그룹들이 남성과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고문, 위협,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Reliefweb, 2022년 6월)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들은 Antioquia, Arauca, Bolivar, Caquet, Casanare, Cauca, Cesar, Choc, Córdoba, Guaviare, Meta, Nariño, Norte de Santander, Putumayo, Tolima, Valle del Cauca and Vichada 지역에서 범죄 조직과 불법 무장 단체로부터 높은 수준의 압력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토착 공동체는 그들만의 전통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어, 부족의 종교적 관행을 버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약 115개의 토착 집단이 있으며, 이들은 국가의 32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속적 불관용: 이는 주로 종교나 기독교에 반대하는 이

데올로기를 가진 단체들에 의해 장려되는 사회적 태도와 국가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속적 불관용은 Bolívar, Bogotá, Antioquia, Caldas, Risaralda, Quindío, Nariño, Valle, Cauca, Boyacá, Santander, Cundinamarca, Tolima 및 Huila와 같은 도시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존재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해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는 고립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큰 교파입니다. 이 범주는 마약 카르텔과 조직 범죄 단체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공격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는 또한 사회에서 증가하는 종교적 불관용과 신앙의 공개적 표현에 대한 거부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 범주에는 교파 간 개종자, 토착 공동체 내 개종자, 그리고 게릴라 그룹과 범죄 조직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토착 공동체의 경우, 개종자들은 공동체의 주요 신념 체계를 포기한 대가로 괴롭힘, 추방, 공동체 서비스에서의 차별, 그리고 일부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 범죄의 맥락에서, 개종자들은 살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이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공동체는 주로 침례교도와 오순절 교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 범죄 그룹이 가하는 압력과 폭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전 정부 행정부는 이들의 평화 협정 이행과 소외 지역에서의 인도적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는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에게 부여되는 동일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정치 분야에 참여할 때 세속주의 압력 단체로부터 심한 반대를 겪습니다. 이들은 토착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며, 그렇게 할 경우 위협에 직면합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조직된 부패와 범죄

콜롬비아 혁명군(FARC) 반군, 민족해방군(ELN) 구성원, 마약 카르텔 및 기타 게릴라 그룹은 불법 활동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지역의 통제권을 놓고 싸웁니다. 이로 인해 교회 지도자와 기독교 단체는 체계적인 감시, 납치, 위협, 갈취, 강제 이주 및 살해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범죄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전투원들에게 설교하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 지도자는 전국적인 파업을 지지하지 않을 때 위협을 받습니다. 그들은 범죄 단체에 의해 파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며, 이는 그들의 부패한 활동과 불법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범죄 단체는 또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후 범죄를 포기한 전 조직원에게 보복합니다.

세속적 불관용

기독교 신념과 관행에 대한 불관용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많은 언어적 공격, 사회적 적대감,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세속주의의 엄격한 해석은 종종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권리를 비차별의 권리와 충돌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거나 특정 교회에 우호적인 공직자들을 공직에서 해임하라 압력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의 정치 분야 참여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콜롬비아에서는 무장 단체에 의한 갈등 관련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착 및 아프로콜롬비아 민족 집단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토착 공동체 내에서는 토착 의식과 관습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압력, 공동체 배척, 건강 서비스 및 교육 접근에서의 차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범죄 단체의 통제 지역에서는 소녀들이 강간과 성희롱을 두려워합니다. 기독교 소녀들은 그들의 성적 순결과 복종으로 인해 범죄 단체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큼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마을/국가에서 강제 이주
- 표적화된 유혹
- 인신매매
- 폭력-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기독교 남성들은 특히 무력 충돌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위협과 폭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들은 갈취와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무장 단체는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을 가하며, 이들은 납치, 강제 징집 및 폭력에 노출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단체의 활동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세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범죄 단체에 반대하는 발언을 할 경우 큰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일부 토착 공동체 내에서는 개종자들이 압력, 신체적 처벌, 배척, 위협 및 강제 노동에 직면합니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회적 공동체 / 네트워크 접근 거부
- 교육을 통한 차별 / 괴롭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집에서 강제 퇴거 - 추방
- 마을/국가에서 강제 이주
- 양심에 반하는 군대 / 민병대 징집 / 복무
- 인신매매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정서적 / 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34	68
2023	22	71
2022	30	68
2021	30	67
2020	41	62

콜롬비아는 2024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보고서(WWL 2024)에서 2.5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형벌, 성폭력 및 기업 공격(16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WL 2023의 15.4점에서 14.1점으로 하락)과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감소한 폭력 점수에 기인합니다. 또한, 씨족 탄압 및 기독교 교파 순환주의에 대한 기록 감소로 인해 개인, 가족 및 공동체 영역에서의 압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및 게릴라 단체의 활발한 존재는 이 나라의 기독교 공동체에 공포를 주고 취약하게 만드는 데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2년 12월** - 산탄데르 주: La Sagrada Familia 교회의 벽이 낙서와 민족해방군(ELN)의 이니셜로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의 시장은 범죄 조직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 **2023년 3월** - 카우카: 포파얀 시에서는 국제 여성의 날에 세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진이 끝난 후, 시위대는 시내 중심부의 산프란시스코 교회와 산토도밍고 교회, 프라도스 델 노르테 지역의 라 밀라그로사 교회 벽에 낙서와 모욕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2023년 4월** - 초코: 세 명의 기독교인이 피탈리토의 한 공동체에 설교하러 갔을 때, 토착 지도자들이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권리와 문화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6시간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3년 8월** - 바라키야: 대주교 파블로 에미로 살라스는 이 지역의 4명의 신부가 직면한 갈취 사건을 비난하고, 푸에르토 콜롬비아의 신부 하이메 바리오스에 대한 갈취 사건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갈취가 지역 교도소 내부에서 온 편지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Emisora Atl ntico, 2023년 8월).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기독교인 살해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 공격 또는 폐쇄	기독교인 납치	기독교인 국내 이주
2024	16	42	8	100*
2023	21	37	11	124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에서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개인적으로 실천할 때 거부, 괴롭힘, 위협, 제한, 추방 등의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기반한 의견을 옹호할 때 이데올로기적 압력 단체로부터 적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토착 공동체나 조직 범죄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동료 신자들과 만날 때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영역

범죄 네트워크가 통제하는 지역 내에서, 기독교 부모는 자녀들이 ELN, 반군 FARC 게릴라, 및 기타 불법 단체들에 의해 세뇌되거나 징집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반대할 경우 괴롭힘, 폭력, 가족과의 장기적인 분리 또는 공동체에서의 이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착 공동체의 경우, 학교는 민족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 학생들은 애니미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토착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괴롭힘은 자녀들이 기독교 부모와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토착 학교와 정부 운영 학교 모두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교육할 권리는 기독교 원칙에 반하는 의무적인 수업을 통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영역

일부 토착 공동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음용수, 교육 및 의료와 같은 기본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며, 더 넓은 사회 및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합니다. 또한, 이들은 조상이나 전통 민족 신앙과 관련된 공동체 종교 관행을 위해 금전이나 농산물 등의 기부를 강요받습니다. 조직 범죄의 맥락에서 범죄 단체는 종종 갈취성 요금을 요구하며,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취약합니다. 지불 거부는 폭력과 강제 징집 및 이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또한 정부 및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독교인들을 강압하여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영역

일부 토착 공동체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위반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토착 관습이 헌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며, 자치적 민족종교 지도자들이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그들 공동체 내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관할권을 가진 토착 공동체에서 법적 정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범죄 단체가 사실상 당국 역할을 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없으며, 종종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불법 단체의 자비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사회는 점점 기독교의 공개적 표현에 불관용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양심적 거부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인들은 '차별주의자'와 '반인권주의자'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교회 영역

교회는 범죄 단체, 토착 지도자,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압력 단체가 위협하는 주요 대상입니다. 일부 토착 공동체에서는 기독교 지도자와 그 가족이 특히 괴롭힘의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기독교 활동이 금지됩니다. 범죄 단체가 장악한 지역에서는 기독교 지도자와 그 가족이 폭력, 감시, 이동 제한의 가장 빈번한 희생자입니다. 특히 이들이 인권, 환경, 청소년, 평화 협정 이행 또는 코카 재배 억제에 종사하는 경우 그러합니다. 이러한 단체의 통제 아래 있는 지역에서는 목사의 자녀들이 인신매매, 강제 징집 또는 강간의 특별한 목표가 되어 목사들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결혼과 가정을 옹호하는 기독교 설교와 교회의 공공 영역 참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콜롬비아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 국제인권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 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아동권리협약(CRC)

콜롬비아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민병대의 표적이 됩니다 (ICCPR 제18조).
- 기독교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제한과 민간 부문에서의 차별을 겪습니다 (ICCPR 제25조 및 26조, ICESCR 제6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대해 논의하거나 전도를 할 경우 괴롭힘과 폭력을 당합니다 (ICCPR 제18조 및 제19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미국 국무부 (IRFR 2022 콜롬비아)에서: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로돌포 에르난데스는 2016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카라마랑가 시장 시절 자신이 '위대한 독일 사상가' 히틀러의 추종자라고 말한 오디오가 공개된 후 6월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문에서 에르난데스는 자신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언급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픈도어의 콜롬비아 사역

오픈도어는 콜롬비아의 박해받는 교회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성경 훈련 / 훈련 자료 배포 / 성경 자료 개발
- 트라우마 상담
- 민족 교육에 대한 조언
- 지역사회 개발: 성경적 세계관 교육; 농업 도구; 및 청지기 교육
- 물리적 인프라 개선
- 생산적인 프로젝트
-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센터 / 장학금)
- 긴급 박해 구호 지원

